

특별기고

징수공단 설립은 사회보험 통합 취지에 엇나간 복지철학



안한갑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작년 11월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 법안은 국회재정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법 제정의 목적은 분산된 보험료징수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빈곤한 복지철학을 넘어서 업무실상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묻어나 있다.

첫째, 현행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은 소득과 과세보다 급여제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보험료를 징수한 후 급여제공에서 급여수급 조건이나 급여 수준의 결정이 각 사회보험 간에 연계가 되지 못하고, 이때문에 중복과 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 통합징수공단 설립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운영의 효율화가 아니다. 이것은 2008년 국민연금 지급 개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및 4인 미만 사업장의 자격·징수관리에 따른 필요인력 증가분제를 통합징수공단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단견일 뿐이다. 통합징수기관은 근로소득보전제도(ETTC) 실시를 앞둔 국세청의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대한 소득과세의 도구로 전략하게 될 것이며, 목적과 과잉대상이 다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셋째,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비용절감은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높은 자동이체율 등으로 통합고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통합징수공단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비와 정보시스템 개발·구현에 대한 비용소요 등 막대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의 업무표준화 작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징수공단 인력규모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내세우기 위한 전형적인 '한권주의'다. 민원상담, 전산입력 등 각종 기본업무량을 감안하면 추후 체납징리 등 업무량 증가에 대한 엄청난 인력충원이 불

가피하다.

넷째, 사회보험급여 수급에서 국민의 편의성은 악화될 것이다.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공단지사를 통한 신고서 공통접수·처리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효과는 거의 없다. 게다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부가기준 일원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급여제공과 분리함으로써 급여지급 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기존 1개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성은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만 가입하는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가입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 또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 계속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징수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활용 및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

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소득과세율과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오히려 높은 소득자료 연계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사각지대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 소득자료는 지금도 연계하여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소득과세를 개선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며, 농어민 등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계속 사각지대로 방치될 것이므로 조 기 소득과세 효과도 의문시된다.

현행 사회보험체계에 필연적으로 내재한 개별사회보험에서의 급여수급 자격문제, 급여의 범위와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간의 급여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철학으로 접근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달성 수단의 하나인 보험료 징수 부문에서의 통합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효과 확대를 도모시킨 분할전도의 개악이다. 동시에, 관리운영의 효율화 달성을 명분으로 한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을 위한 방편이며, 이에 편승한 정부 부처의 조직 확대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사회단체칼럼

포천에 수능시험장을 유치하자



이희용
포천시 교육지원장

해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여는 곳이 그렇듯이 포천의 수험생들의 마음은 한없이 분주할 뿐만 아니라 시험이 아닌 다른 걱정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 걱정만도 속을 태우는 이들이 의정부시나 남양주시, 고양시의 학생들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도 오랜 기간을 태연하고 무심하게 우리의 자녀들인 포천출신의 수능 수험생에 고민을 외면해 왔다는 생각이 마음시려온다.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전국의 학생들과 나가서는 세계와 경쟁해야할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외부와의 실력을 경쟁하는 시험을 치는 데만 의정부시내까지 나가서 수능시험을 치러야하는 고질적인 격정을 하며 고민을 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인가?

수험장이 가까워도 지각하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인데 관인에서, 영북에서, 일동에서, 포천에서 소름에서 새벽같이 출발하여 먼 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멀미로 컨디션이 망치는 않음? 수능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야 시험장에 도착하는데 시험 칠 때 졸음이 오거나 시험도 보기 전에 몸이 지쳐 불리고, 시험 보는 장소도 어딘지 몰라서 시험 전에 이미 기운을 빼야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 알고 있다시피 시험은 마음이 편해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장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매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만했지 진정으로 우리 포천의 학부모나 시민 중에 누구도 낯선 외지에 가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하나 앞장서서 수능시험장 유치를 위해 나서서 사람이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시험을 치르는지 낯선 곳에 새벽같이 허겁지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칠 때 얼마나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력을 발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내 자식이 또는 내 후배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역장이 무너지는 현실에 복장이 터진다.

포천에서 앞으로 이런 입시 고통을 겪을 대입시험 대상자의 인원을 알아보면 2009년 대상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알아보면, 포천고 368명, 포천일고 418명, 동남고 353명, 영북중고 74명, 관인고 38명, 일동고 193명으로 총 1444명이고, 2010년 대입대상자(현 고1)는 일동고 198명, 관인고 48명, 영북중고 51명, 포천고 376명, 포천일고 424명, 동남고 351명, 송우고 426명, 총 1874명 (참고: 포천교육청학생현황자료에 달한다).

이제라도 우리지역의 학부모와 지역선배들

은 마음을 모아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이러한 일들은 외면하지 말고 선거운전 시민과의 계약인 매니페스토로 수능 시험장 유치를 당연히 내걸어야 한다. 또한 교육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체육계를 물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장 이룰 수 있는 것부터 현실화 시켜야 우리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살현이 불가능한 공약이나 약속은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게 되고 그것은 불신의 벽을 자꾸 쌓아 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제 시민이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서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결국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에 의해서 지역 발전과 국가의 희망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포천지역 수험생 수가 비록 적다고는 하나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수능시험장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당국에 조언하고 싶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집행하여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이다. 요즘 학부모와 학교간에 잦은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들로 인한 개선의 요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포천에는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은 물론 각급 학교 교장, 교육계 공무원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내 지역에서 자신 있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고 우리의 중등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포천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가 모두 될 수 있게 운집을 모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이나 독자기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명문 고등학교를 포천에 유치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강원도 횡성의 민속사관 고등학교의 예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다. 어느 지역이든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의 미래는 당연히 밝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자존심을 회복하자. 그래서 온 시민의 힘을 모아 우리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유치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후배들이 포천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서명운동부터 시작합시다.



교육에세이 57

선생님 찬가



이희연
영북초등학교 교장

필자가 교육의 길에 들어서게 된 동기는 이렇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인도 모를 각혈로 인하여 학교를 1주일이나 결석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병명은 기관지염이라고 했다. 각혈을 심하게 해서인지 엑스선이 없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필자가 느꼈다. 각혈을 하기전만 해도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던 때에 각혈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스스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진학을 접고 교육대학으로 진학하기로 일찌감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꿈을 심어 주기 위해

서는 비록 짧은 2년의 대학 생활이지만 책무성을 갖고 면학에 충실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했다.

교직에 발령 받아서도 하숙집이 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교실에 가서 그날 배울 교과의 학습 자료를 만든다거나, 음악시간에 가르칠 노래를 미리 풍금으로 연습해 두곤 했다. 또한 아침 자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모 교육월간지에서 공모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2등급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직경력 3년 만에 주어졌던 처음 받았던 표창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교육의 길을 잘 걸었다는 생각이다. 또한 선배 교육자님들도 존경하지만 후배 교육자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교사가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을 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믿는다. 과거에 '체력은 국력'이라고 흥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건강해야 국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건강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감히 '교육력이 국력'이라고 과격하고 싶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고, 세계 여러 나라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두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이다.

그렇다면 결국 '교육력이 국력'이라고 구호를 외쳐야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승으로서의 대접받는 사회가 도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도 선생님을 애찬하고 있다.

Teachers Kevin William Huff

Teachers
Paint their minds
and guide their thoughts
Share their achievements
and advise their faults
Inspire a Love
of knowledge and truth
As you light the path
Which leads our youth
For our future brighteners
with each lesson you teach
each smile you lengthen(…)
For the dawn of each poet
each philosopher and king
Begins with a Teacher
and the wisdom they bring.

선생님은… 케빈 윌리엄 허프

선생님은 학생들 마음에 색깔을 칠하고 생각의 길잡이가 되고 학생들과 함께 성취해 나가고 실수를 바로잡고 길을 밝혀 줍니다. 짧은이들을 인도하며 지식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일깨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시인, 철학자, 왕의 탄생은 선생님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혜로부터 시작하니깐요.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기술자문 및 대관업무 상담

REAL TV - 『TV 속 세상』 2007년 5월 22일(화) 방영업체



◆변압기 부하 측정



◆발전기 엔진오일 점검